고판화의 모든 것을 본다


한국, 금강산사대찰전도.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인쇄문화의 꽃–고판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치성광여래도 등 소장품 120여 점 전시

삽화판화 등 분야별로 일목요연한 전시 구성

크기 압도 대형 고판화 · 고판목 70여점 눈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고판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규모 특별전을 연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인쇄문화의 꽃 - 고판화' 展을 개최한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명품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의 소장품 6천여 점 중에서 고서, 고판목, 대형 고판화 등 120여 점의 명품을 삽화판화, 예술판화, 문양판화로 선별하여 전시함으로써 고판화에 대한 다채로운 매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동아시아 고판화만을 내세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인 이번 특별전은 특히 웅장한 크기로 관람객을 압도하는 대형 고판화와 고판목 70여 점이 눈길을 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고판화박물관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보급을 위해 함께 기획한 이번 전시는 특히 그림 책 도시를 선도하는 원주에서 책 축제 기간에 전시되어 인쇄와 미술의 복합성을 띄고 있는 그림책의 원조인 동아시아 고판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장르별로 나누어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1부 삽화판화 - 그림책의 원조, 2부 예술판화 - 대중예술의 꽃, 3부 문양판화의 세계 - 생활예술의 꽃,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152호 불설아미타경 등 총 7건의 도지정문화재가 모두 출품된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베트남의 고판화 명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1부 삽화판화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작품으로는 강원도 지정문화재 7건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 최고의 판화인 오륜행실도 목판, 원주의 대표적인 인물로 고구마를 가져온 조엄(趙曮, 1719~1777)이 그려진 조선통신사 행렬도 등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전적류와 세계적 명품인 명나라 성화 13년(1477) 황실 내부각본인 〈불정심다라니경〉 등이다.

△2부 예술판화에서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꼽히는 한국 '치성광여래도', 중국의 '아미타래영도 대형 판목', 고려불화를 모본하여 판각한 일본의 '오백나한도' 대형 목판화 등의 불화판화와 천주교 '연옥도' 판화 등 다양한 대형 종교판화를 꼽을 수 있으며, 채색 '십장생도' 까치와 호랑이 8폭 병풍 등 한국의 민화 판화, 다색 호랑이 판화, 대형 '백자도' 등 중국의 년화 판화, 고호가 특히 사랑했던 히로시게 동해도 53차 대형 병풍, 호코사이의 후지산 36경 등 일본 우키요에 판화들도 주목된다.

△3부 문양판화에서는 옛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멋을 실천했던 능화판, 시전지 등을 비롯하여 문자도 판화 등이 소개된다.

한선학 관장은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전시를 국립민속박물관, 일본 도쿄, 중국 소주 등 국내외에서 60여 차례 특별전을 개최했지만 이번 전시회는 규모가 가장 큰 전시회이다. 특히 고서, 고판목, 대형 고판화 명품 120여 점이 전시돼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고판화의 매력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전시다. 특히 그동안 전시장이 작아 고판화박물관의 명품을 전제적으로 조명하기 어려웠던 수도권과 강원도 대중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대중들이 전시장을 찾아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깊은 역사를 지닌 고판화의 미감을 1000여 년 전부터 20세기 초까지 망라된 동아시의 고판화의 주요 흐름을 풀어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30여 년 동안 동 아시아 고판화를 6000여 점 수집했으며, 2003년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을 설립했다. 다양한 고판화 전시와 박물관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 왔으며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일조해 왔다. 고판화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양대에서 우리나라 1호로 박물관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연구와 실천이 겸비된 활동으로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문의- 원주시립중앙도서관(033-737-4360), 명주사 고판화박물관(033-761-7885).

국립 경주博 '불상과 친해지는 ~' 주말 확대

8월 21일부터 매주 토 · 일요일도 진행해


특별전 '불상과 친해지는 특별한 방법'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이 지난 6월부터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과 친해지는 특별한 시간'을 8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말에도 진행한다. 기존 평일(6.16~9.29 수 · 금 오후 2시~2시 50분)에만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주말(8.21~10.3 토일 오전 10시~5시 50분)까지 확대한다.

신라 불상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불상과 친해지는 특별한 시간'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불상과 친해지는 특별한 방법'의 이해를 돕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현장 자율학습 활동지와 관찰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키트를 제공한다. 활동지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하며 불상의 구조, 다양한 불상의 이름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교육 키트에는 신라 불상 카드와 불상 블록 만들기 교구재가 들어있다. 어린이들은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에서 카드 속 불상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집에서는 불상 블록을 조립하며 전시관에서 관찰한 불상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박물관 관람객이라면 정해진 운영 시간에 현장에서 활동지와 교육 키트를 가져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단 어린이박물관 관람 접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예약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신라불상을 이해하고 불상이 품고 있는 역사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054)740-7543.

박재완 기자

韓대표 성보 반가사유상, 애칭 지어주세요

國博, 9월 30일까지 애칭 공모

신설 상설전시관 전시 기념

전시장 10월 28일 오픈 예정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재인 국보 78호 · 83호 반가사유상의 애칭 공모전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한국의 대표 유물인 반가사유상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 '반가사유상 애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월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재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친근감을 더해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는 국보 78호 · 83호 반가사유상 2점의 애칭을 각각 지어 오는 9월 30일까지 공모전 사이트(http://museumpensive.dev-dnad.kr/contest/main.php)에 제출하면 된다.

새롭게 꾸민 상설전시관에 전시되는 반가사유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진행하는 이번 애칭공모전의 수상작은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입선 10명 등 총 21명을 선발한다. 수상작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엔 문화상품권(100만 원)과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문화상품인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7종 모두를 증정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반가사유상 애칭 공모전'은 한국문화재를 애호하는 사람이면 내 · 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 2점의 반가사유상을 같은 공간에서 상설전시 하는 공간을 준비 중이다.

전시장은 오는 10월 28일 최적의 건축디자인과 설비를 갖추어 440㎡ 규모로 오픈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13년 한국 생활에
남은 건 암덩이와 빚더미

봉제공장서 근무한구룽시타씨 부부…사기당해 건물서 쫓겨나
직장암 수술 앞둬…검사비만 500만원 병원비는 알 수 없어 암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